

## 2018 학년도 제 3 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8년 1월 19일(금) 15:00~16:30
- 회의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종진 (위원장)  
                  염영섭 (학교법인 상임이사)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최효영 (대학원 총학생회장)  
                  박의빈 (학부 부총학생회장)  
                  김평강 (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 불참위원 : 김현정 (주간MBA 원우회장)
- 배    석 : 이도행 (법인사무처 계장)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김남진 (간사/ 기획예산팀 계장)

### 1. 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 내용 설명

- 배석한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이 2017 학년도 가결산 대비 2018 학년도 가예산 자료를 설명함.

### 2. 등록금 심의 관련 위원 발언

#### 이종진(위원장)

학교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려면 등록금이 인상되어야하는 현실임. 다만 정부 정책상 등록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이익이 있는 상황임. 학교 재정이 점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재정운영의 기초는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고자함. 학교의 구성주체들이 다같이 고통분담을 하고자 하는 차원이지만 특히 교직원들이 조금 더 희생하는 방향으로 가고자함. 학부 등록금 책정안을 확정짓고자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동결안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함.

####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그간의 자료를 통해 학교가 어렵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고자 함.

#### 이종진(위원장)

지난 회의에서의 학생위원의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았음. 법인을 무조건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학교 전체 큰 맥락에서 보자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함. 2주기 대학기본

역량진단평가에 있어서 법인책무성 지표가 1점 배점임. 법인 전입금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에 따르면 1점 만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전임교원 숫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었음. 2008년 약 350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5년간 약 450명까지 늘었음. 전임교원이 100명 정도 증가하면서 사학연금 등 부담해야할 금액이 커짐. 우리 학교 재정 규모만을 고려했을 때는 적정한 규모가 350~370명으로 추산됨. 우리 학교법인은 정책적으로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총장에게 전권을 맡기는 구조이다 보니 이렇게 되었음. 이러한 것들은 양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최근 법인에서 2016년 토론에서 나온 요구사항들을 점진적으로 수용 중에 있음. 법인 전입금 규모 유지 및 증액 노력을 하고 있고, 법인 직원 축소 구조조정, 법인수익사업의 상속세 등을 통해 법인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여준 지난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책임지고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사장, 상임이사가 교체되고 향후 이사진도 교체될 계획임. 예수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임. 다만 변화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 법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음.

####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많은 고민을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학교와 법인이 나아지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많이 알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음. 다만 한가지, 학교 규모에 비추어 적정 교원수가 370명 이라는 것에 대해선 재고가 필요함. 현재 420명이지만 국가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연과학부 외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 **이종진(위원장)**

교원 수를 급감시키지는 않을 것임. 고령화에 따른 연구력 보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다만 연구력을 신입교원을 통해 보전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 현재 교원들에게 분발을 촉구하여 연구력을 발휘하게끔 해야 함.

####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전임교원 충원율이라는 지표를 봐야한다고 생각함. 학교나 학생들이 가져야할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봐야함. 다른 학교들이 전임교원을 100% 충원 못한다고 해서 우리학교도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자연과학부를 제외하고선 100% 충원하고 있는 곳이 없음. 학교가 어려운 상황임은 알겠지만 전임교원을 줄이는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말씀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학교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물가나 최저임금은 늘어나는 상황임. 전체 규모에서 인건비가 약 45%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해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임. 그러한 가운데 적정한 지점을 찾아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임. 구체적으로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는 향후 계속 검토를 해나가야겠지만, 효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갔으면 함.

### 이종진(위원장)

명목상 동결이지만 물가상승율을 고려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인하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학생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하여 동결 하고자함을 이해해주었으면 함. 학교에서도 수입재원마련을 위해 현재 총동문회가 일부 쓰고 있는 동문회관 공간 등을 회수하여 활용할 방안을 고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원재환(학생문화처장)

대통령 임금도 2.2%정도 인상되고 공무원이나 공기업도 그럴 것임. 우리 학교 직원선생님과 교수님은 계속 동결임. 기획처 입장에서도 인상을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제시하진 않은 점을 학생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설득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학교와 법인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주시고 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명목상 동결이라도 인플레이션 감안했을때 실질적 인하 효과가 있으니, 학생사회로 돌아가서 얘기하긴 쉽지 않겠지만 동결로 의견을 일치시켰으면 함.

###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보수 관련하여 얘기하고자 함. 청소노동자나 영선실 일하시는 분들 재협상에 있어서 처우 개선이라든가, 아웃소싱이 아닌 직접 고용 형태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향후 마련되었으면 함. 또한 등록금이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함. 등록금심의위원회 외에도 회의체를 통해 학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함.

### 이종진(위원장)

의견에 감사하며,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생각함. 학부 등록금이 동결되더라도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지 않도록 수시로 만나서 논의해야 함.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복지나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좋은 의견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겠음.

###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전임교원 확보율에 신경써야하는 만큼 교직원 인건비에도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함. 내년도 등록금 수입 관련해서, 학부 수업료가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유학생은 증가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의문이 생김.

###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외국인 유학생 증가 추세와 별개로 학부 정원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부분이 있음.

###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타 대학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가 많이 있음. 우리 학교는 몇 년 짜 내국인 학생과 동일하게 유지했음. 유학생에 대한 멘토링 장학금이나 한국어 교육 지원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어 인상의 필요성이 있음.

###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학부 학생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전임교원 확보이며, 앞으로 전임교원 확보와 교육복지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었으면 함.

### 이종진(위원장)

추후 각종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수업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함. 예를 들어 수학과와 의 경우 매패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돈을 들여 최신버전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과정이 최신 버전 매패를 못따라가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렇듯 각 단위에서 로스되는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자연과학부의 경우 RA관 개선도 필요하고, 수업에 사용하는 칠판의 개선도 필요한 상황임. 시설복지비에 특히 증액이 필요함.

### 이종진(위원장)

대학원 측 의견을 듣고자 함.

### 최효영(대학원 총학생회장)

학부의 경우 장학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대학원은 감소추세임. 정부가 정책으로 학부는 입학금도 인하하는데, 대학원은 보호 장치가 하나도 없음. 학부에서 인상을 못해서 대학원 인상을 통해 보전한다는 느낌도 있음. 이번에 학부 행정팀으로 추가 지원하는 2억의 경우에도 학부랑 공통으로 쓰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임. 고등분담의 차원에서 대학원 학생회도 여러 가지 삭감하고 있는 상황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부행정팀으로 예산을 지원해줘도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음.

###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일반대학원 장학금 총액을 예상 등록금 수입의 45%로 함. TA나 일반장학금은 일반대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분배함. 일반적으로 예상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적게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실제 수입대비 45%이상 지급되고 있음. 이를 현실화 시키는 상황이라고 이해해주었으면 함. 만약 18년 예산 수입 보다 실제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면 장학금을 증액하기로 한 상태임.

### 최효영(대학원 총학생회장)

예전엔 절대금액이었다가 최근에는 수입대비 비율로 바뀌었다고 들음. 대학원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이 비율이라도 늘려주었으면 함.

###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45% 이하로 지급해도 재정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임. 학생 배려 차원에서 그 비율은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주었으면 함.

### 원재환(학생문화처장)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면 얼마나 수입이 증가하는지.

### 이종진(위원장)

일반대학원은 약 1.3억, 특수대학원은 약 1.1억 정도 수입예산이 증가함.

### 원재환(학생문화처장)

종일제 학생인 일반대학원생은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함.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간 인상률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대학원은 0.5%로 인상률 하향, 직장인들이 많아 조금은 더 여유가 있고 타대학 대비 낮은 수준인 특수대학원은 1.5%로 상향할 것을 제안함.

### 최효영(대학원 총학생회장)

TA와 일반장학금을 더 삭감하지 않으셨으면 함.

### 이종진(위원장)

말씀드렸다시피 각 학과의 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장님들께 말씀드렸었고, 학생들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음.

### 최효영(대학원 총학생회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학교같이 타 대학원의 경우 논문심사비를 교비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음.

### 이종진(위원장)

논문심사비가 지원되는 학교는 그만큼 등록금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등록금심의위원회 이후 별도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한양대학교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논문심사료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음. 충분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함.

### 박의빈(학부 부총학생회장)

학부와 대학원이 공유하는 것에서는 일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학원이 인상된다면 인상액 만큼은 대학원생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함.

### 염영섭 (학교법인 상임이사)

정책적으로 학생 복지 및 교육 여건에 대해서 학교가 신경을 많이 써야함을 강조하고 싶음. 지난 10년동안 학생 혜택의 질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학부 및 대학원 대표와 함께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이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갖게 된 가장 큰 희망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해야함.

### 최효영(대학원 총학생회장)

마지막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 중에 대학원 학생들 중 외국에 논문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교

내 통번역 센터가 있는데 대학원생에게 서비스 안되는 경우가 많음. 학부생들보다 대학원생이 더 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음. 전문분야에 대한 논문이다 보니 잘못 검색을 하거나 하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원재환(학생문화처장)**

경영학부의 경우 보통은 지도교수와 공저로 논문을 쓰기 때문에 번역서비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학생 단독으로 쓰더라도 학교이름을 소속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함.

#### **이종진(위원장)**

대학원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프로세스가 개선될 수 있게 하겠음.

#### **김평강(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

게임교육원 학생들도 본교에서 동아리에 참여하는 등 서강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함. 타 학교의 게임교육원에 비해 비교적 지원도 잘 되고 아웃풋도 좋은 편이라고 알고 있음. 학내복지부에서 차등이 있다고 들었음. 강의실 예약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게임교육원 학생들도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음.

#### **이종진(위원장)**

국제문화교육원이 K관 이전하면서 휴게실도 마련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고려하고 있음.

#### **김남진(간사)**

학부행정팀으로의 대학원생의 접근성이 낮은 것을 생각하면, 위원장님과 학생문화처장님께서 각종 학처장 회의나 대학원 위원회 등에서 학부와 분리된 대학원 지원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원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수업료 인상만큼 장학금의 증대가 있었으면 하는 대학원 총학생회장의 발언 등 이러한 내용들을 회의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종진(위원장)**

그렇게 하겠음.

####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기금회계 전출금이 12.5억이라고 하면 올해초 기금 410억에서 12.5억이 감소된다고 이해하면 되는건지.

####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기금인출하여 지출예산으로 배정해서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됨.

####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가결산에 복리후생비에서 예산에 비해서 5억이 지출됐고, 가결산에 비해 내년 연구비가 한 25

역 증가했음. 그리고 학생지원비는 예산에 비해 35억 줄었음. 수입은 일정한데 비용이 많이 줄었음. 이런 부분을 체크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임.

####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수입 감소에 따라 지출예산도 불용이 생길 수 밖에 없음. 실제 수입에 맞춰서 지출 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음. 비교 대상이 2017년도의 본예산과 가결산, 2018년도의 본예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추경 예산이 마감되지 않은 것으로 아직 덜 반영 됐다고 볼 수 있음.

####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학생위원들도 개별적으로 와서 확인하였음.

####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복리후생비가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증가하였음.

####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본예산 예상보다 교직원 장기근속과 퇴직자들이 늘어서 장기근속 표창 등 금액이 늘었음. 인원에 따라 매년 변동성이 있는 항목임

#### 원재환(학생문화처장)

학부 위원과 대학원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을 회의록에 꼭 반영을 해주셔서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줬으면 함.

### 3. 결정사항


- 등록금 책정안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학부 입학금 16% 인하 및 수업료 동결 (단, 학부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정원외) 5% 인상)
  - 일반대학원 수업료 0.5% 인상, 특수대학원 수업료 1.5% 인상

### 4. 차기 회의 일정

- 차기 회의는 2018년 1월 22일 (월) 오후 2:00 에 진행하기로 함.

2018. 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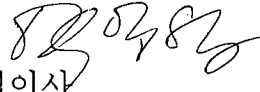
위의 사실을 확인함


위원장 : 이종진 기획처장 


(교직원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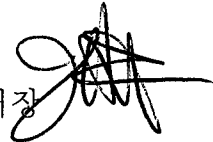
(학생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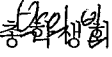
(외부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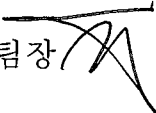
염영섭   
법인 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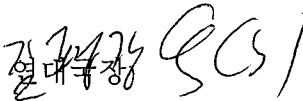
최효영   
대학원총학생회장

김창배   
파투아 부회장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박의빈   
학부 부총학생회장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김평강   
총학생회 설대부장